

-았/었-

과거 시제

동사의 종결 어미 앞에 들어갑니다. 모음은 -아요/어요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하나를 익히면 다른 하나도 익히게 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ㅣ 또는 ㅜ	-았-	살다 → 살았어요
같은 모음 축약	-았- 흡수	가다 → 갔어요
그 밖의 모음	-었-	먹다 → 먹었어요
하다 동사	했	공부하다 → 공부했어요
격식체 어미와 함께	-았/었습니다	먹었습니다
이다	이었어요 / 였어요	학생이었어요 / 친구였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-았/었-은 선언말 어미로, 어간과 뒤에 오는 어미 사이에 들어갑니다. 먹 + 았 + 어요는 먹었어요가 되고, 격식체 어미와 함께 쓰면 먹었습니다가 됩니다. 이미 아는 어미는 모두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.

모음 규칙은 해요체 현재형과 같습니다.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ㅣ나 ㅜ이면 았, 그 밖에는 었을 쓰고, 하다는 했가 됩니다. 축약도 똑같이 일어납니다. 가 + 았은 갔으로 줄고, 보 + 았은 봤, 마시 + 었은 마셨이 됩니다.

미리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. 한국어는 예전에 시작되어 지금도 이어지는 상태에 과거형을 씁니다. 결혼했어요는 ‘결혼했다’는 사건뿐 아니라 ‘지금 기혼이다’라는 상태도 나타냅니다. 앓았어요(지금 앓아 있다), 닳았어요(서로 닳았다)도 마찬가지입니다.

■ 예문

- 1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.
- 2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요.
- 3 언니는 작년에 결혼했어요.
- 4 그 사람은 아버지를 닳았어요.
- 5 학생이었을 때 자주 갔어요.
- 6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.

■ 비교

-고 있었다

-았/었-은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내고, -고 있었다는 특정 시점에 그 일이 진행 중이었음을 나타냅니다. 진행 중이던 동작을 말하려면 후자를 씁니다.

숙제를 했어요. (숙제를 끝냈다) /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. (숙제를 하는 중이었다)

-았/었었-

두 번 겹쳐 쓰면 사건이 더 먼 과거로 밀려나 현재와 단절됩니다.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 상태를 나타냅니다.

서울에 살았어요. (서울에 살았다) / 서울에 살았었어요. (예전에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다)

결과 상태

몇몇 동사는 동작의 결과로 생긴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기 때문에, 현재 상태를 과거형으로 나타냅니다.

앓았어요. (앓아 있다) / 닳았어요. (서로 닳았다)

■ 주의

- ✗ 어제 학교에 가았어요.
- 어제 학교에 갔어요.
- 어간이 이미 ㅣ로 끝나므로 앓이 흡수됩니다. 사다 → 샀어요, 만나다 → 만났어요도 같은 방식입니다.
- ✗ 한국어를 공부하였어요.
- 한국어를 공부했어요.
- 하다는 과거에서 항상 했가 되며 하였은 쓰지 않습니다. 모든 하다 동사가 이를 따릅니다: 일했어요, 운동했어요, 사랑했어요.
- ✗ 어제 친구를 만나요.
-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.
- 어제 같은 시간어만으로 동사가 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. 한국어는 시제를 항상 동사에 표시합니다.